

『창세기 20회: 창세기 20:1-18』

1.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다(20:1-7)

1-2절, 아브라함은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머물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방랑생활을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늘 위협에 처해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9장에서 우리는 방랑자들이 어떤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¹⁾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반복된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당시에 아내를 빼앗는 일이 흔히 벌어진 일이었음을 의미합니다.²⁾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독자들을 실망시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는 단계였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지만, 20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청하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큰 지혜로 성전을 지었지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자신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강하게 믿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믿음을 전혀 보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언약을 성취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3절-7절, 하나님은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간 이후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앓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잠자리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³⁾ 아비멜렉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혼인한 여인’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그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속았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18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라고 질문합니다. 백성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18.

2)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18.

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20

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죄가 있다면 자신의 왕국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로서 왕은 백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⁴⁾ 이어서 그는 “투명한 양심과 깨끗한 손들로” 행했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나는 네가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은 바로 그이다. 너는 어쨌든 죽은 자다. 이 여인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는 한”⁵⁾

성경은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은 이유를 그의 성품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병을 주셨고,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비멜렉조차도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큰 죄를 짓도록 허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좌절된 만남이 아쉽고, 날아간 좋은 기회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과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신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7절은 성경에서 처음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입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역할은 ‘중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아비멜렉을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다’의 히브리어는 ‘팔랄’입니다. 60회 중 25회에서 중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⁶⁾ 단순히 빈도수만 놓고 본다면, **우리 기도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이방인인 아비멜렉은 긍정적으로 대조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참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생각도 행동도 바르고 훌륭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예쁘고, 잘나고, 착합니다.⁷⁾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4)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90.

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21.

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93.

7)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7), 218.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한계를 돌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뿐이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제외하고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의 자녀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아비멜렉의 인생이 불의한 아브라함의 도고기도에 의존했던 것처럼, 잘나고 의로운 사람들의 인생도 못나고 불의한 내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⁸⁾

2.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다(20:8-16).

8-10절, 고대 세계에서는 신이 꿈을 통해 사람에게 방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아비멜렉은 ‘다음 날 아침’ 즉시 비상 회의를 열어 관리들을 소집합니다. 아비멜렉은 꿈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들려주었고, 신하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랄의 안녕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다고 선언한 셈입니다.⁹⁾ 아비멜렉이 신하들에게 자신이 속은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는 모습과 대조됩니다.¹⁰⁾ 신하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서술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¹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겁내하고 두려워합니다.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할까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지나치게 걱정하여 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요구는 들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염려합니다.

8)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7), 219.

9)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24.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96.

11)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175.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런 걱정은 허황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한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합니다.

11절-13절,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변명을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리라고 예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라는 그의 이복누이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안쓰럽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런 처지에 처하곤 합니다.

아비멜렉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갚습니다. (1) 가축과 종을 넘겨주고, (2) 땅을 주고, (3) 은을 선물로 줍니다. 앗수르 법(BC 15-12세기)에 따르면, 여행 중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행했을 때, 자신은 그 여자가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맹세하고 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여행 중 결혼한 여자와 동행했다는 자체가 범죄였습니다.¹²⁾ 즉, 아비멜렉은 자신이 사라가 아브람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결코 몰랐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사라를 향해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먼저, 아비멜렉은 자신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수치를 가리다”, “일이 다 해결되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사라에게도 죄가 없음을 밝힙니다. 비록 이 사건에 있어서 사라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은 사라의 수치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사라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다음으로, 아비멜렉은 “일이 다 해결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공적인 사법 재판에서 결론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남편에게 값을 지불함으로써 사라에게 어떤 죄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즉, 왕은 부부에게 진 빚을 완전히 청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라에게도 그 어떤 수치나 죄책이 남지 않았습니다.¹³⁾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죄책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12)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27.

1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28.

3.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치유하다(20:17-18)

17-18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는 불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온전히 대우하자 불임이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을 대신해 중재하였고, 그 결과 출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사라 이외의’ 다른 여인들은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¹⁴⁾

앞서 우리는 기도의 역설을 살폈습니다.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아비멜렉은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은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용해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격과 성품,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기죽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못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0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역설은 자신의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공부하는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전부 해결이 안 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우습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도고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21장에서 사라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성품과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00.